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스마트시티 글로벌 동향

북한포커스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스마트시티 글로벌 동향 1

북한포커스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3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6



스마트시티 글로벌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회훈 (credit@kdb.co.kr)

- ◆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시티 경쟁력이 상승세인 것으로 평가
- ◆ 실질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민간 참여와 리빙랩이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중

□ 세계 각국에서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중

-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 개선 방법으로 채택
 - *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4차산업혁명위원회)
 - 도시 문제* 해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인구 과밀, 인프라 부족, 공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 환경 문제 개선이 주요 사업 목표
 - 온실가스 문제 등으로 환경 관련 사업의 중요성 증가

스마트시티별 주요 사업

도시	주요 사업
싱가포르	디지털 신원 확인,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쓰레기통
취리히	스마트 교통, 그린시티(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타이페이	스마트 페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긴급구조, 스마트 재활용
헬싱키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의료, 스마트 쓰레기통
코펜하겐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사이클링, 스마트 재활용
뉴욕	스마트 노숙자 관리, 무료 Wi-fi 구축
런던	개방형 데이터 공유 포털, 스마트 헬스케어, 친환경 공원
서울	공공데이터 개방, IoT망 구축, 디지털 트윈(정책 시뮬레이션)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

□ 시장 규모 확대 지속중이며 국내 스마트시티 경쟁력 상승세

- 세계 시장 규모는 향후 10~20년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도 등 개도국까지 스마트시티가 확산되면서 세계 시장 규모는 연 13.8% 성장하여 2026년 8,737억 달러 수준 전망

- 싱가포르, 취리히 등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내 도시 평가 순위 상승
 - 2021년 세계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취리히, 오슬로 등 유럽 도시를 중심으로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이 전년 대비 34단계 상승한 13위, 부산은 9단계 상승한 37위에 랭크
 - * 싱가포르가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였고, 스위스는 취리히, 로잔, 제네바가 Top 10에 랭크되어 세계 최상위 스마트시티 보유국으로 평가됨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 예측



자료 : Markets and Markets, '21

2021 스마트시티 인덱스

순위(2021)	도시	등급(2021)	등급(2020)	순위 변동
1	싱가포르	AAA	AAA	-
2	취리히	AA	AA	▲ 1
3	오슬로	AA	AA	▲ 2
4	타이페이	A	A	▲ 4
5	로잔	A	new	
6	헬싱키	A	AA	▼ 4
7	코펜하겐	A	AA	▼ 1
8	제네바	A	AA	▼ 1
9	오클랜드	A	AA	▼ 5
10	빌바오	BBB	BBB	▲ 14
13	서울	BBB	BB	▲ 34
37	부산	BB	BB	▲ 9

자료 : IMD

□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고도화 추진중이며 다양한 신기술 적용 시도

- 민간 참여와 리빙랩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고도화 추구
 -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 추진중이나, 서비스의 유용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
 - * 뉴욕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픈노베이션 운영중이며 런던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민 참여 촉진
 - 리빙랩*을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과정으로 적극 활용**
 - *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기술 혁신을 추구하거나 사회 문제 해법을 탐색하는 활동
 - ** 코펜하겐은 스트리트랩, 에너지랩, 가로등 리빙랩 등을 구현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촉진
- 데이터 사업이 활발하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으로 서비스 다양성과 혁신성 증가
 -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공급 플랫폼 사업을 중점 추진*
 - * 런던은 개방형 데이터 공유 포털인 '런던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셋을 확대중이고, 서울시는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인 S-Data 사업 추진중
 -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주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VR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중*
 - *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기반의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검증 플랫폼을 구축

북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주요내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matsuhara@kdb.co.kr)

- ◆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21.12.27~12.31)하여 '21년도 사업실적 결산 및 '22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을 논의
- ◆ 대내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1~25)' 수행기반 조성, 농업부문 역량강화 및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여 내부 안정에 집중하는 의지 표명
- ◆ 대외적으로 대남·대미 메시지 발표를 이례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유보적 태도 표출
- ◆ 향후 대북제재·국경봉쇄 등 외부 경제환경 악화 지속상황을 감안,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면서 주변국 여건 변화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2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전원회의 결과 발표문으로 '22년도 신년사를 대체

- 전원회의는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 역할 대행 기구로, 대내외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사이의 주요 정책결정 권한을 전원회의 앞 위임
- 금번 개최된 제8기 4차 전원회의는 1천여명에 달하는 참석자 및 5일에 걸친 개최기간 등의 측면에서 이례적 규모
 -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내각 부처 장관 등 기관장급 뿐만 아니라, 시·군 대표 및 공장·기업소 간부까지 방청으로 배석
 - 5일간(21.12.27~31) 진행된 회의는 11일동안 개최된 '73.9월 전원회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
- 전원회의 결과 발표문으로 '22년도 신년사를 대체하였다는 측면에서 '19.12월 개최된 제7기 5차 전원회의와 유사
 - 신년사를 대신하여 1년간 성과를 총괄하고, 앞으로의 주요 대내외 정책 요강을 발표하기 위해, 매년 12월말 정기적인 전원회의 소집 관행 정착 가능성 시사

□ 대내정책과 관련하여 ①'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1~25)' 수행기반 조성 지속 추진, ②농업부문 역량 강화, ③코로나19 방역 등을 과제로 제시

- 경제부문에서는 생산 활성화, 정비보강사업 지속 등 '5개년계획'에서 既 제시된 정책목표를 재강조
 - 내각의 경제관리 콘트롤 타워 기능 강조 및 과학·교육의 동시 발전 추진

경제부문 정책방향 주요내용

산업	내 용
금속	■ '우리식 제철법(탄소열법)' 관련 기술 향상, 철강생산설비 확장·현대화
화학	■ 신규 건설 비료생산설비(순천인비료공장) 가동 정상화, 경공업 및 제약 원료 생산 증대, 탄소하나(C1)화학 관련 생산설비 건설 지속 추진
전력	■ 전력생산 증대, 송전손실 축소, 신규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활용 발전설비 증설
석탄	■ 탄전 개발, 신규 채탄기술·설비 도입
철도운수	■ 철도 안전성 제고 및 현대화
기계	■ 룬전(운송)기계, 전기기계, 건설기계 생산 증대
건설	■ 연간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지속
경공업	■ 교복·가방·학용품 등 소비품생산 활성화, 식료가공기술 과학화
수산	■ 어획량 증대, 양어·양식 등 수산자원 증식
국토관리, 도시경영	■ 산림조성, 하천관리, 사방공사, 도로 안전성 확보, 생태환경 보호, 도시경관 조성

자료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2022.1.1.)

- 농업부문은 토의시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김정은이 직접 보고문건*을 발표하는 등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성 강조
 - *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김정은('21.12.31)
 - 향후 10년간 곡물·축산물·농산물의 종류별·단계별 증산목표 제시 (단, 구체적인 수치는 미발표)
 -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특혜조치* 도입 선포
 - * 협동농장이 북한당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종자·기계기구·비료 관련 대금의 미상환금 전면 면제, 농촌근로자 생활용품 지원 등
-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 대외정책은 대남·대미 관련 언급 최소화, 국방부문 관련 발표도 기존 정책방향 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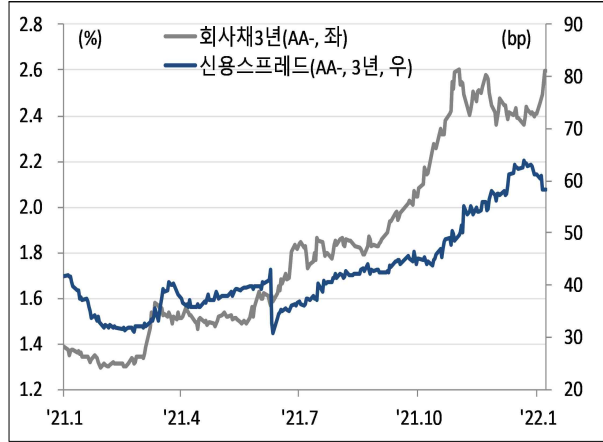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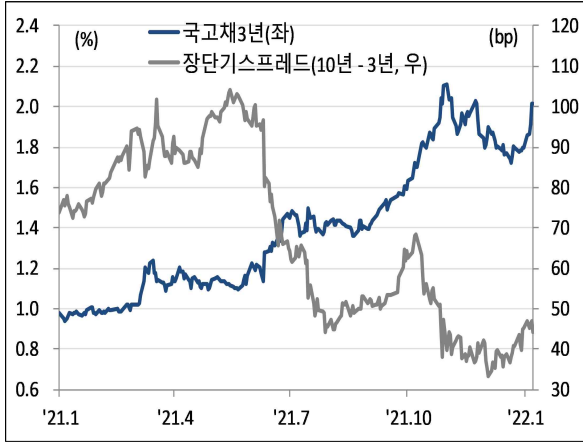
-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관련 내용은 예외적으로 적은 분량을 할당, 구체적 논의 내용 비공개
 - 분과별 토의를 통해 대남·대미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공개된 문언은 전체 보도문의 0.4%인 63자*에 불과

* “다사다난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 첨단무기체계 개발, 국방공업 현대화·과학화 등 제8차 당대회(21.1월) 시기부터 제기되었던 기존 국방부문 전략적 기조를 유지
- **노동당 간부 인사 관련, 김여정 부부장은 직위변동이 없었으며, 박정근 내각 부총리가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 노동당 정치국 진입이 예상되었던 김여정 부부장은 노동당 내 지위 변동 없이 현상 유지
 - 내각 관료 중 정치국 위원은 김덕훈 총리가 유일하였으나, 금번 박정근 부총리의 위원 승진으로 노동당 내 내각의 위상 강화
- **향후, 대내적으로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주변국 정세변화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
 - 대북제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 외부 경제여건 악화 지속상황을 감안, 농업 중심의 기초적인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주력
 - 농업부문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방향 제시, 미상환금 전면 면제를 비롯한 “혁명적 중대조치” 도입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가시적인 실적 창출 의도
 - 금번 발표내용에서 제외된 대남·대외정책은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변화 추이를 감안한 뒤, 추후 공개될 가능성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2.015% (21.7bp ↑), 신용스프레드 58.3bp (3bp ↓)



환율 원/달러 1,201.5원 (9.7원 ↑), 엔/달러 115.56엔 (0.47엔 ↑)



주가 코스피 2,954.89pt (1.13% ↓), 코스닥지수 995.16pt (4.11%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60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